

## 국무회의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야당을 신뢰해 주고 신뢰를 서로 묶어 가는 방향으로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남북 관계는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합시다. 문제는 국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은 특검을 하되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야당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 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설마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야당을 신뢰해 주고 신뢰를 서로 묶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야당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도 우리를 믿을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당도 국익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당에 신뢰를 주고, 약속한 바대로 야당이 법을 수정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읍시다. 신뢰를 보내고 또 거기에 화답하고, 그런 것을 국민이 볼 수 있게 합시다. 도박 같은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를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거부권 행사 의견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자세,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의 약간의 차이입니다.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에 변화를 주어 보자는 의도인 것입니다.